국어 5-2

4. 겪은 일을 써요(1회)

<국어> 124~153쪽

초등학교
학년 반 번
이름:

※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 (1~3)

> "아함! 졸려."
> ㉠어제저녁에 방에서 컴퓨터를 하는데 졸음이 밀려온다. ㉡안방으로 가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 내 동생 용준이가 나를 툭툭 치며 장난을 걸어왔다. 나는 용준이가 또 덤빌까 봐 용준이 손을 잡고 안 놓아주었다. ㉢그러다가 그만 내 눈에 쇳덩어리(용준이 머리)가 '쿵' 하고 부딪쳤다.

1 언제 일어난 일을 쓴 것입니까? .... (　　)

① 어제저녁 　② 오늘 새벽
③ 오늘 아침 　④ 오늘 저녁
⑤ 내일 아침

2 용준이와 '나' 사이에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? .... (　　)

① 용준이가 '나'를 놀려서 다투었다.
② '내'가 용준이를 밀어서 넘어뜨렸다.
③ 용준이가 일부러 '나'를 다치게 했다.
④ 용준이와 놀다가 '내'가 용준이를 때렸다.
⑤ 용준이와 놀다가 용준이 머리가 '내' 눈에 부딪쳤다.

3 ㉠~㉢ 가운데 문장 성분의 호응이 잘못된 문장의 기호를 쓰시오.

(　　　　　　)

4 문장 성분의 호응이 이루어지도록 글을 써야 하는 까닭에 맞게 (　　)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선택하시오.

• (글의 주제, 문장의 뜻, 문장 부호의 의미)을/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※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. (5~7)

5 그림 (가)와 그림 (나)에서 생각한 내용은 글쓰기 과정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각각 선으로 이으시오.

(1) (가) •　　　　• ㉠ 계획하기
(2) (나) •　　　　• ㉡ 내용 생성하기

6 그림 (가)의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? .... (　　)

① 글을 고쳐 쓴다.
② 직접 글을 써 본다.
③ 글을 쓸 준비를 한다.
④ 다른 친구들이 쓴 글을 평가한다.
⑤ 문장 성분이 바르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살펴본다.

7 그림 (나)의 단계에서 하는 일로 알맞은 것을 선택하시오.

(1) 직접 글을 쓴다. (　　)
(2) 쓸 내용을 나눈다. (　　)
(3) 쓸 내용을 떠올린다. (　　)

LIVEWORKSHEETS

※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 (8~10)

> (가)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은 환경 파괴의 피해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.
> (나) 할아버지는 얼른 밥을 다 먹고 또 일하러 나가셨다.

8 (가)의 문장이 잘못된 까닭은 무엇입니까? … (　　)

① 서술어를 쓰지 않아서
② 표준어가 아닌 낱말을 사용해서
③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바르지 않아서
④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바르지 않아서
⑤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바르지 않아서

9 다음에서 (가)의 문장을 바르게 고친 문장을 골라 선택 하시오.

(1)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은 환경 파괴의 피해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. (　　)
(2)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은 환경 파괴의 피해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것 같다. (　　)
(3)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은 환경 파괴의 피해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. (　　)

10 (나)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고쳐 썼습니다. 그 까닭은 무엇일지 쓰시오.

> 할아버지께서는 얼른 진지를 다 잡수시고 또 일하러 나가셨다.

____

____

11 다음 밑줄 그은 부분을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에 주의하며 고쳐 쓰시오.

> 어제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<u>나간다</u>.

(　　　　　　　)

※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 (12~13)

> 내가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일에 도전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순간들도 <u>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.</u>

12 이 문장에서 밑줄 그은 부분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바르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.

> 해인: 글쓴이가 대회에 참가한 것은 과거의 일이므로 '느꼈다'를 '느꼈었다'로 써야 한다.
> 지민: '느낀 점은~느꼈다'가 되기 때문에 '느꼈다'는 '느낀 점'이라는 주어에 맞는 서술어가 아니다.
> 승조: '~하다는 것을 느꼈다'는 확실하지 않은 표현이므로 '~하는 것이 느껴졌다'로 고치는 것이 알맞다.

(　　　　　　　)

13 밑줄 그은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쓴 것은 무엇입니까? …… (　　)

① 소중하다는 것이다.
② 소중한 것을 느꼈을까?
③ 소중하다는 것을 느낀다.
④ 소중하다는 것을 느낀 것 같다.
⑤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.

14 다음 중 문장 성분의 호응이 바른 문장은 무엇입니까? …… (　　)

① 내 짝꿍은 여간 자신감이 넘친다.
② 나는 결코 친구에게 나쁜 말을 한다.
③ 내 동생은 전혀 내 기분을 알고 있다.
④ 나는 게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.
⑤ 나는 내일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.

LIVEWORKSHEETS

15 겪은 일이 드러나는 글을 쓰고 글 모음집에 실으려고 합니다. 어떤 일을 글로 쓸지 정해 ㉠, ㉡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.

- 목적: 글 모음집에 실으려고
- 글의 종류: 겪은 일을 표현하는 글
- 읽는 사람: [㉠]
- 주제: [㉡]

(1) ㉠: ______________________

(2) ㉡: ______________________

16 다음 ㉠, ㉡에 들어갈 말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? .... (　　)

> 경험과 같이 글을 쓰는 재료가 되는 것을 [㉠]이라고 하고, 자신이 글로 나타내고 싶은 생각을 [㉡]라고 한다.

	㉠	㉡
①	주제	글감
②	주제	주장
③	글감	주제
④	글감	의견
⑤	의견	글쓴이

17 글을 쓰기 전에 글 내용을 조직해야 하는 까닭을 알맞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.

> 진호: 글의 내용을 짧게 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.
> 혜원: 한 편의 글에 여러 주제를 다양하게 담을 수 있기 때문이야.
> 동욱: 글을 쓸 때 기초를 잘 세워야 좋은 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야.

(　　　　　　)

18 매체를 활용해 글을 쓸 때의 좋은 점을 **두 가지** 고르시오. .... (　　　)

① 글로 생각을 나누기 편하다.
②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읽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.
③ 말로 표현했을 때와 달리 오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.
④ 스마트폰이 없거나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.
⑤ 아무나 글을 읽고 댓글을 달 수 있는 경우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다.

19 학급에서 친구들이 쓴 글을 올리고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사용할 매체를 결정하려고 합니다. 활용할 매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알맞은 것을 선택 하시오.

(1) 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. (　　)
(2) 반 학생 중 일부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. (　　)
(3) 긴 글을 쉽게 올리고 다 같이 읽어 볼 수 있어야 한다. (　　)

20 매체를 활용해 글을 쓰거나 의견을 나눌 때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? .... (　　)

① 그림말을 많이 사용한다.
② 예의를 갖추어 글을 쓴다.
③ 비속어나 은어를 많이 사용한다.
④ 친구의 의견에서 잘못된 점만 지적한다.
⑤ 친한 친구와 의견을 나눌 때는 반드시 높임말을 쓴다.

LIVEWORKSHEETS